한화케미칼, 추가 성장여력 충분

유화증권, 2011년부터 호황국면 진입 ... 중국 PVC 공장 완공도

유화증권은 한화케미칼에 대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호황국면에 접어들고 중국 생산으로 영업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3만2000원에서 4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건태 연구원은 11월22일 “태양전지 등 신규사업 가시화를 감안했을 때 2011년 주가수익비율(PER) 7.7배는 매력적인 수준”이라며 “영업실적과 업황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4/4분기 영업이익이 976억원으로 전분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4797억원으로 전년대비 16.8% 늘어날 것”이라며 “2011년 예상 영업이익은 5759억원으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8월 인수한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 솔라편파워의 순이익이 상승하고 있어 2010년 700억원 이상의 지분법 이익이 예상되고, 시험가동중인 중국 PVC 공장도 2011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가동해 영업실적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22>